

부산지역 물리치료사 이직동향 연구

송민영¹ · 이태식²

^{1,2}동의의료원 재활치료센터

The Trend of Turnover within Physical Therapist in Busan

Min Young Song¹ · Tae Sik Lee²

^{1,2}Dong Eui Medical Center

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physical therapist's turnover experience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related general factors, and to investigate the turnover, moving-in and out rate. **Methods:** First Data were collected from 102 physical therapists who working in Busan Metropolitan cit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hen second data collected from who call to directly. **Results:** Physical therapists expressed high level of turnover experience. Physical therapist's turnover experi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ir age, marital status, sex, working place and career. In proportion of the total increasing rate of physical therapist and turnover rate was increased. **Conclusion:** To prevent or reduce physical therapist's turnover rate, more research about causal relationships of physical therapist's turnover should studied.

Key words : moving-in and out rate, physical therapists, turnover experience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국민의 교육 및 경제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환자들도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윤미숙 등, 2001). 2007년 2월에 발표한 22

개 OECD회원국 중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37.7%로 두 번째로 높았고, 또한 22개 국가와 19개 국가 중에서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1.6명)와 간호사 수(1.9명)가 각각 마지막에 순위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의 향상에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7).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인력의 동향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증감추세를 파악하고 있지만 나머지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건산업리포트, 2007).

물리치료사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적인 사람으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고 병원, 학교, 장·단기 재활시설, 외래환자, 스포츠 현장 등에서 실행되며, 우리사회에 노령 인구가 증가해 감에 있어서 재활의 설정에서도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물리치료는 이론과 임상적 적용이 통합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치료와 최대의 신체의 기능적인 결과의 성취를 위해 제공되는 직종이다(Richards와 Cristian).

물리치료사의 수는 1970년에 1개 대학에서 144명으로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2008년 현재 58개 대학에서 33,215명의 물리치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전문 의료기사로 등록되어 있다. 물리치료사가 국민의 의료보전 향상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습득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 동안의 이직률, 전출입 현황을 조사하여 물리치료사 인력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산지역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기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직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접수된 102명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그 후 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협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이직률과 전출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9문항과 이직에 관련된 설문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설문지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작성되어 수집되었으며, 2005년에서 2007년의 이직률과 전출입 현황은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구두조사를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윈도우용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직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이직 및 전출입 현황에서도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200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설문지에 응답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성별은 남자 41.2%, 여자 58.8%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47.1%로 가장 많았고, 혼인여부는 미혼이 62.7%, 기혼이 37.3%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42	41.2	혼인여부	미혼	64	62.7
	여자	60	58.8		기혼	38	37.3
연령	20대	48	47.1	연봉	2000만 원 이하	24	23.5
	30대	36	35.3		3000만 원 이하	68	66.7
	40대	16	15.7		4000만 원 이하	10	9.8
	50대	2	2.0	학력	전문대졸	54	52.9
병원형태	대학병원	2	2.0		대학교졸	32	31.4
	종합병원	12	11.8		대학원(재학포함)	16	15.7
	개인병원	70	68.6	현재병원 근무시간	주 40시간 이하	16	15.7
	복지관	4	3.9		주 40~44시간	38	37.3
기타 의료기관	14	13.7	주 44~48시간		24	23.5	
임상경력	1~2년	14	13.7		주 48시간 이상	18	17.6
	3~4년	40	39.2	기타	6	5.9	
	5~6년	12	11.8	현만족도	만족	32	31.4
	7~9년	8	7.8		보통	64	62.7
	10~14년	12	11.8		불만족	6	5.9
15년 이상	16	15.7					

병원형태는 개인병원이 68.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료기관 13.7%, 종합병원 11.8%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상경력에서는 3~4년이 39.2%로 가장 많았고 1~2년이 13.7%로 나타났고, 학력은 전문대졸이 52.9%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졸이 31.4%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만족도는 보통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 31.4%, 불만족 5.9% 순서로 나타났으며, 연봉은 3000만 원 이하가 66.7%로 가장 높았고 2000만 원 이하가 23.5%로 나타났다.

현재 병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44시간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4시간~48시간이 23.5% 순으로 나타났다.

2. 물리치료사의 이직경험

1) 이직경험

물리치료사의 이직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80.4%로 나타났고, 없는 경우가 19.6%로 나타났다.

이직의 횟수는 2회인 경우가 27.5%로 가장 많았고, 3회와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서 19.6%, 1회가 17.6%, 4회가 15.7%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는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연봉이 32.9%,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30.5%, 더 좋은 조건의 병원에 가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고, 근무시간이 맞지 않는 것과 직원들 간의 문제가 7.3%로 각각 나타났다.

표 2. 대상자들의 이직경험

	분류	빈도(명)	백분율(%)
이직경험	있다.	82	80.4
	없다.	20	19.6
이직 횟수	1회	17.6	18
	2회	27.5	28
	3회	19.6	20
	4회	15.7	16
	이직 안함	19.6	20
이직사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25	30.5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6	7.3
	직원들간의 문제로 인하여	6	7.3
	연봉	27	32.9
	더 좋은 조건의 병원에 가기 위해	18	22.0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직경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이직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90.5%로 이직경험이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5.8%로 이직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50대에 이르러서는 0.00%로 이직경험이 없어서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5$). 혼인 여부에서는 미혼이 93.8%, 기혼이 57.9%로 미혼에서 이직경험이 많아 혼인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5$). 병원형태별로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복지관, 기타 의료기관에서 100.0%로 모두 이직경험이 있었으며, 개인병원에서는 71.4%로 이직경험이 있어 통계적으로 병원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임상경력에서는 1~2년과 3~4년의 경력에서 100.0%로 이직경험이 높았으며, 15년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 임상경력에 따라 이직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5$). 그리고 학력에서는 대학교졸, 대학원(재학포함)에서 87.5%로 이직경험이 높았으며, 전문대졸이 74.1%로 낮았지만 학력에 따른 이직경험이 통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직경험

	분류	이직했음 (%)	이직 안했음 (%)	전체(%)	$\chi^2(df)$	p-값
성별	남자	38(90.5)	4(9.5)	42(100)	4.60*	0.032
	여자	44(73.3)	16(26.7)	60(100)		
연령	20대	46(95.8)	2(4.2)	48(100)	34.332	0.000
	30대	30(83.3)	6(16.7)	36(100)		
	40대	6(37.5)	10(62.5)	16(100)		
	50대	0(0.0)	2(100.0)	2(100)		
	60대	0(0.0)	2(100.0)	2(100)		
혼인 여부	미혼	60(93.8)	4(6.3)	64(100)	19.446	0.000
	기혼	22(57.9)	16(42.1)	38(100)		
병원 형태	대학병원	2(100.0)	0(0.0)	2(100)	11.37	0.023
	종합병원	12(100.0)	0(0.0)	12(100)		
	개인병원	50(71.4)	20(28.6)	70(100)		
	복지관	4(100.0)	0(0.0)	4(100)		
	기타 의료기관	14(100.0)	0(0.0)	14(100)		
	의료기관	14(100.0)	0(0.0)	14(100)		
임상 경력	1~2년	14(100.0)	0(0.0)	14(100)	39.190	0.000
	3~4년	40(100.0)	0(0.0)	40(100)		
	5~6년	10(87.3)	2(16.7)	12(100)		
	7~9년	6(75.0)	2(25.0)	8(100)		
	10~14년	6(50.0)	6(50.0)	12(100)		
	15년 이상	6(37.5)	10(62.5)	16(100)		
학력	전문대졸	40(74.1)	14(25.9)	54(100)	2.906	0.234
	대학교졸	28(87.5)	4(12.5)	32(100)		
	대학원(재학포함)	14(87.5)	2(12.5)	16(100)		
연봉	2000만 원 이하	22(91.7)	2(8.3)	24(100)	4.165	0.100
	3000만 원 이하	54(79.4)	14(20.6)	68(100)		
	4000만 원 이하	6(60.0)	4(40.0)	10(100)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연봉에서도 2,000만 원 이하에서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0만 원 이하에서 79.4%, 4,000만 원 이하에서

6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연봉에 따른 이직경험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3.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 이직 및 전출입 동향

본 연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직률과 전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전체 총 회원수는 927명이며, 2006년에는 1,030명(11.1%), 2007년에는 1,229명(32.6%)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입은 2005년에 280명에서 2006년에 431명(53.9%)으로 증가하다. 2007년에는 319명(13.9%)으로 감소하여 나타났다. 전출은 2005년에 180명에서 2006년 117명(-35.0%)으로 감소하다 다시 2007년에는 179명(-0.5%)으로 증가하였다.

이직회원 수는 2005년 95명에서 2006년에는 232명(144.2%), 2007년에는 329명(246.3%)으로 총회원수와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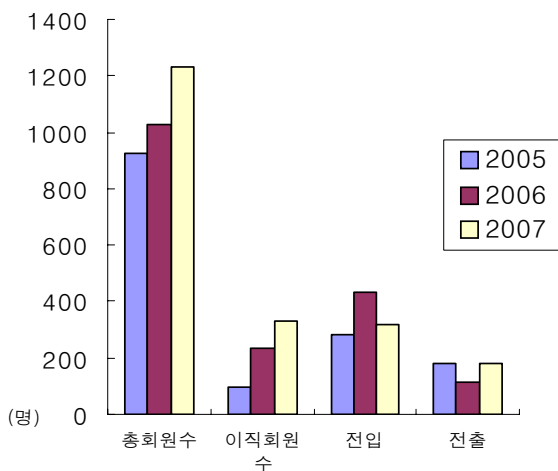


그림 1. 부산시 물리치료사 이직 및 전출입 인원 수

IV. 논 의

오늘날 다른 어느 조직보다 복잡한 병원조직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력 중에서 물리치료사는 의사, 간호

사와 더불어 환자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서연숙과 김윤찬, 2007).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장애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가 직무에 만족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형수 등, 2005). 미국에서는 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사 보조는 1년에 2,500~2,800명 가까이 치료하면서, 평균적으로 주당 50~55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한다. 성공적인 미국의 물리치료 의원은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높은 치료품질과 개인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Duxbury, 2008).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치료환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은 하루에 30명 이상, 주당 150명~170명, 1년에 7,600~8,200명 정도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질적 치료보다는 양적 치료에 편중되어 환자나 물리치료사에게 몹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직이란 자신이 소속한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데, 조직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인력이 제거되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업종에 따라 필요인력을 상실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정범구와 이재근, 2002).

의학기술의 발달과 전문화와 세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병원조직은 더욱 복잡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종래의 진료기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기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기능도 가지게 되었으나 병원조직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 및 갈등이 심화되어 병원조직 구성원이 내부적인 혹은 병원환경 변화로 현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서 보면 조직은 보다 유용한 구성원을 확보하려 하고 개인은 자신의 요구를 가장 많이 충족시켜 주는 조직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이직이 이루어진다. 병원종사자가 불만족하거나 조직에서 막 떠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가 왜 불만

족스러워 하며 그를 붙잡아 두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중요한 점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직 성향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다(방용주, 2003).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산지역 물리치료사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확도 높은 물리치료사의 이직 및 전출입 현황을 조사하여 협회에서는 정책추진과 체계적인 조직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회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드높여 물리치료사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무작위로 선정한 물리치료사에게서 접수된 102장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직경험에서 80.4%가 이직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는 최(2006)의 연구에서보다 무려 40%나 높게 나타나, 치위생사보다 물리치료사가 이직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직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성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에서 90.5%로 여자에서보다 이직경험이 많았고, 연령은 20대에서 95.8%로 이직경험이 가장 많게 나타나 초기 사회적응기에 이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직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혼인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미혼에서 93.8%로 나타나 혼인하지 않은 시기의 이직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직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병원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개인병원을 제외하고 대학병원, 종합병원, 복지관 그리고 기타 의료기관에서의 이직경험이 100.0%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도가 큰 개인병원에서의 이직이 71.4%이러니 무작위적인 선정방식에서 오는 오류라 사료된다.

이직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임상경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1~2년과 3~4년에서 이직경험이 각각 100%로 나타나 연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취적인 사회적응기에 이직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직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학력과 연봉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통계학 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학력과 연봉은 이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 이직 및 전출입 현황에서는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 회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직회원수도 증가하였으나 전출입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변수, 즉 신생대학의 신입회원 배출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취업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지역이 부산광역시에 국한되어 있고, 이직 인과관계의 조사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여 우리나라 모든 물리치료사의 이직특성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사료된다. 그리하여 모든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를 시도한다면 물리치료사의 이직률 감소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 동안의 이직률, 전출입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혼인여부, 임상경력 그리고 성별, 병원형태의 순서로 나타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직하는 물리치료사도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 전체 물리치료사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물리치료 회원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영배, 김원중, 황인경 등. 병원직종별 이직의도에 관련된 영향요인. 한국병원경영학회지, 4(1); 21-40, 1999.
- 방용주. 산재병원 구성원들의 직종별 이직의사에 관련된 영향요인. 한국병원경영학회지, 8(3); 92-117, 2003.
-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리포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 서연숙, 김윤찬.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저널, 12; 151-172, 2007.
- 이형수, 김한나, 송화경 등. 전남 동부지역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만족도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7(1); 71-86, 2005.
- 윤미숙, 김진선, 류소연 등.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 요인. 조선대학교 의대논문집, 27(1); 192-200, 2001.
- 정범구, 이재근. 채용방식과 채용 후 직무태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인적자원개발연구, 4(2); 129-158, 2002.
- 최미숙, 윤미숙, 이경희. 치과위생사의 이직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6(1); 11-17, 2006.
- Duxbury P. The Physician-Owned Physical Therapy Department. Orthop Clin N Am. 39; 49-53, 2008.
- Richards S, Cristian A. The Role of the Physical Therapist in the Care of the Older Adult. Clin Geriatr Med. 22; 269-279, 2006.